

현시기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안 현 일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옳게 타산하는것은 기본건설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와 관리운영에서 경제적효과성을 잘 타산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456페이지)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은 기본건설에 돌려지는 투자액과 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과와의 호상 대비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바로 타산하여야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확대발전 시키는데서 가장 적은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결과를 달성할수 있다.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록 같은 기본건설자금을 가지고도 고정재산을 더 많이 늘이고 보다 적은 지출로써 생산을 더 많이 낼수 있다.

현시기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경제적효과성타산지표설정을 바로하는것이다.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은 건설 및 운영단계의 각이한 측면에서 나타나며 서로 다른 측정단위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은 개별적인 지표 하나만으로는 규정할수 없으며 기본건설투자와 그 실현과정, 실현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체계를 설정함으로써만 옳게 타산할수 있다.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지표에는 기본건설투자와 그 실현과정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본건설투자액, 건설기간, 노동생산능률, 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 및 중요자재 지출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본건설투자의 실현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생산원가, 노동생산능률, 건설물의 수명, 생산능력(생산량, 생산면적), 원료, 자재의 현물소비량 등의 지표들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본건설투자와 그것의 실현과정 및 실현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들의 호상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생산능력당 기본건설투자액(생산량단위당 투자액, 생산면적단위당 투자액), 투자의 보상기간, 환산비 등 지표들도 포함된다.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을 바로하자면 이러한 지표들을 기본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기본지표에는 기본건설투자액, 생산물의 원가, 노동생산능률, 건설기간, 기본건설투자의 보상기간, 환산비, 기준보상기간 등의 지표들이 속하며 보조지표에는 그밖의 지표들이 속한다.

현시기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기본건설투자의 계산대상을 바로 설정하고 계산방법을 과학적으로 확립하는것이다.

기본건설투자의 계산대상에는 직접투자액, 린접투자액, 류동자금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이 포함된다.

직접투자액은 일정한 사명의 건설물건설에 직접 지출되는 자금이다. 직접투자액은 건설작업액, 대상설비비, 대상설계사업비, 기타 기본건설비 등 대상건설과 직접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시켜 계산한다.

직접투자액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할수 있다.

첫째 방법은 생산능력단위당 기본건설투자기준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술과제와 설계과제의 작성단계, 전망건설계획의 작성단계에서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할 때 주로 적용할수 있다.

이 단계에서 직접투자액은 구체적인 설계예산을 작성하지 못한 조건에서 효과성을 타산하게 되므로 개략계산한다.

$$\text{직접 투자액} = \frac{\text{건설대상의 생산능력}}{\text{생산능력}} \times \text{기준투자액}$$

둘째 방법은 개략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설계과제, 기술설계작성과 계획화단계들에서 효과성의 보다 정확한 타산을 위하여 적용할수 있다.

린접투자액은 일정한 사명을 가진 대상건설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다. 린접투자액에는 해당 대상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보장하는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투자, 투자실현후 건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보장하는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투자 등이 속한다.

린접투자액의 계산은 기술설계작성단계에서 하지 않으며 주로 전망건설계획과 기술과제작성단계에서 어떤 생산기술공정을 가진 대상을 건설하겠는가를 규정할 때에 리용한다.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서 린접투자액을 계산하는것은 대상건설과 관련하여 련결된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동반되는것과 관련된다.

린접투자액은 해당 린접부문을 설정하고 린접부문의 단위당 투자기준액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우선 대상건설에 필요한 건재의 생산보장과 관련한 린접투자액은 건재공업부문 투자기준과 대상건설에 필요한 건재소요량, 예견되는 대상의 수명기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k_{\text{린1}} = \sum_{i=1}^n (k_i \times \frac{q_{li}}{t})$$

여기서 $k_{\text{린1}}$; 대상건설에 필요한 건재의 생산보장과 관련한 린접투자액, k_i ; 린접부문의 건재종류별기준투자액, q_{li} ; 대상건설에 필요한 건재소요량, t ; 건설물의 예견되는 수명이다.

또한 건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원료, 연료 등의 보장과 관련되는 린접투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k_{\text{린2}} = \sum_{i=1}^n (q_{2i} \times k_i) \quad \text{또는} \quad k_{\text{린2}} = \sum_{i=1}^n (Q \times a_i \times k_i)$$

여기서 $k_{\text{린2}}$; 건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원료, 연료 등을 보장하는것과 관련되는 린접투자액, q_{2i} ; 건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원료, 연료의 연간소요량, k_i ; 원료, 연료생산부문의 단위당 기준투자액, n ; 린접부문수, Q ; 건설대상의 조업개시생산능력, a_i ; 린접부문에서 원료, 연료의 생산량단위당 소비기준이다.

이로부터 린접 부문에 대한 투자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k_{\text{린,총}} = k_{\text{린1}} + k_{\text{린2}}$$

류동자금조성에 필요한 자금은 본래의 의미에서는 기본건설투자액이 아니다. 그러나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서는 그것을 일정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동지출로 보고 기본건설투자액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것은 생산능력의 확대에 따라 추가 지출되는 류동자금이 고정재산의 확대재생산에 지출되는 기본건설투자액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경제적효과성타산에서는 류동자금조성에 대한 지출도 기본건설투자액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류동자금조성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부문에서 생산능력단위당 류동자금지출기준액을 규정한데 기초하여 계산한다.

$$\begin{array}{l} \text{대상의 운영과 관련한} \\ \text{류동자금지출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대상의 조업개시} \\ \text{생산능력}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생산능력단위당} \\ \text{류동자금} \\ \text{소요기준액} \end{array}$$

현시기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기본건설투자의 절대경제적효과성과 기본건설투자의 대비경제적효과성을 정확히 타산하는것이다.

기본건설투자의 절대경제적효과성은 대상건설에 지출되는 투자가 얼마만한 경제적효과를 나타내는가를 반영한다.

절대경제적효과성타산은 기본건설투자액과 그 실현결과에 얻게 되는 경제적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한다.

절대경제적효과성은 그 타산대상이 투자방안들사이의 비교선택문제가 아니라 투자대상의 경제적효과성을 인민경제적견지에서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지표의 설정과 계산방법에서 일련의 특성이 있다.

기본건설투자의 절대경제적효과성의 기본지표로는 기본건설투자액, 생산원가, 소득액, 건설기간, 투자의 보상기간 등을 설정할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투자의 보상기간을 바로 정하는것이다.

개별적대상건설에 대한 절대경제적효과성을 반영하는 투자보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다.

$$\text{투자보상기간} = \frac{\text{대상건설에 대한 투자액}}{\frac{\text{건설대상의 연간} - \text{건설대상의 조업개시후}}{\text{조업개시생산액} \quad \text{년간생산원가}}}$$

여기서 대상건설에 대한 투자액에는 직접적인 투자액과 류동자금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포함시킨다.

조업개시생산액은 대상건설이 끝난 후 생산되는 제품의 품종 및 량과 해당하는 도매가격에 기초하여 규정한다. 기본건설투자의 절대경제적효과성의 세분화정도에 따라 조업개시생산액은 대상에 대하여 총체적으로뿐만아니라 세분대상별로도 계산한다.

실례로 현존공장을 현대화 혹은 확장하는 경우 투자의 실현전에 총생산액이 1 000만원, 총생산원가가 900만원, 리윤이 100만원이고 투자 1 000만원을 실현한 이후에는 총생산액이 1 000만원, 총생산원가가 800만원, 리윤이 200만원으로 되었다면 투자의 보상기

간(E)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 = \frac{1\,000}{1\,000 - 800} = 5(\text{년})$$

투자의 보상원천인 가격과 원가의 차액으로 계산된 200만원(1 000-800)은 투자의 실현결과에 얻어진 리윤 100만원과 함께 투자실현이전에 달성된 리윤 1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투자의 실현과 관련된 리윤액을 갈라내어 그것을 보상원천으로 한 보상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기본건설투자의 대비경제적효과성은 기본건설투자의 보상기간과 환산비에 의하여 타산할수 있다.

기본건설투자의 보상기간은 기본건설투자를 그 실현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효과로 얼마만한 기간에 보상할수 있는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본건설투자와 경제적효과와의 호상관계로 표시되는 상대값이다.

기본건설투자의 보상기간은 투자액과 소득사이의 호상관계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수 있다.

$$\text{기본건설투자의 보상기간} = \frac{\text{대상건설에 대한 투자액}}{\text{투자대상의 생활비를 포함하지 않은 년생산액} - \text{투자대상의 년생산원가}}$$

이 계산식은 지출되는 투자를 대상건설결과 얻는 소득액으로 보상할수 있는 기간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 지표는 대상건설의 경제적인의의를 평가하며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속도를 특징짓는데서 의의가 있다.

기본건설투자의 보상기간은 기본건설투자액과 투자실현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저하액에 기초하여 계산할수 있다.

기본건설투자액과 원가저하액사이의 호상관계로 계산되는 기본건설투자의 보상기간은 현대화, 확장을 위한 투자의 보상기간과 여러 방안을 대비하는 경우의 보상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할수 있다. 그것은 이 경우 방안들의 대비조건이 다른것과 관련된다.

현대화, 확장을 위한 투자의 보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현대화, 확장을 위한 투자의 보상기간} = \frac{\text{현대화, 확장을 위한 기본건설투자액}}{\text{현대화, 확장전 년간 총생산원가} - \text{현대화, 확장후 년간 생산원가}}$$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서 여러 투자방안들을 대비하는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환산비지표에 의한 방법이다.

환산비에 의한 기본건설투자방안들의 경제적대비는 계산된 보상기간과 효과성기준결수에 의하여 진행된다. 환산비에 의한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서는 투자방안의 환산비가 최소로 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으로 된다.

우리는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